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최삼영 건축사 |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사는 공간에서 근무하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였다. 대지를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또 목구조에 관심이 많아 일정 성과를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야기하는 동안 최 건축사의 진지한 자세를 계속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제도가 갖는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함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헤쳐 나가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앞으로도 최 건축사의 작품을 기대하며, 또 그가 원하는 건축이 이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글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이하 유) : 네, 저는 대전에서 박인수 건축사와 대학교 때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계로 만나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이르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지에 이렇게 인터뷰 코너가 마련되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터뷰 코너를 즐기는 분들의 연락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인터뷰인데, 저에게는 좋은 건축사분들을 만나는 멋진 기회도 될뿐더러 현장 실무에 대한 자극을 받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 최삼영(이하 최) : 좋습니다. 건축계에서도 이렇게 건축과 건축사의 흥미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유 : 슈퍼스타급(?) 건축사를 다룬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많은 건축사를 선택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 각 건축사가 도약의 발판을 삼길 바랍니다.

● 박 : 사실 저희는 건축사지에 실려던 건축물 중에서 편집위원들이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건축사지에 실리는 작품들은 자전에 의한 것 보다는 편집위원들이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 : 또 인터뷰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첫 질문을 드리자면 사무실의 위치와 환경이 매우 특이한데 가와건축이 언제 그리고 왜 이 장소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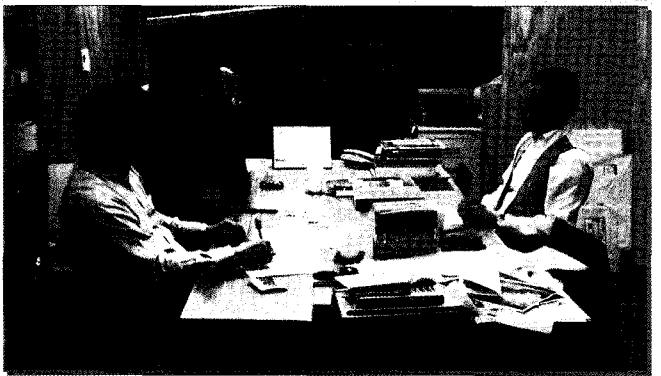
라 잡게 되었나요? (가와건축은 단독주택이 빼곡한 합정동의 한 주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 최 : 이전에 강남의 신사동에 있다가 2002년 월드컵 무렵에 이리 오게 되었으니 이제 8년 되었네요.

● 박 : 개업은 언제 하셨나요?

최 : 1994년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국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공간에 9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무실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전시와 건축을 함께하는 안전사라는 회사에서 제가 주로 건축을 맡아 처리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1996년에 신사동에서 개업을 하였지요.

● 유 : 이 동네로 이사 오신 것은 서울에서도 여러 장소를 살펴본 후에 정하신 것인가요?



인터뷰 일자 2010년 5월 28일
장 소 가와건축 회의실

참 석 자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사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 최 :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더난출판사를 리노베이션 하었는데, 그때 이곳을 오가며 동네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홍익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던 터라 낯익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강남의 스케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곳이 정감이 가더라고요. 특히 저희 직원들이 이곳을 많이 좋아하죠. 가까운 곳에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 박 : 신사동 사무실은 어디였나요?

• 최 : 지금은 꽤 유명한 가로수길 이면도로의 근생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자그마한 곳이었죠. 주변에 원도시건축 등이 가깝게 있었고, 또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순대국밥도 시장에서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는 강남에서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 유 : 그동안 가와건축 건축사사무소의 규모가 어떻게 변모되었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와 가장 적었을 때를 비교해서 본다면.

• 최 :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원의 문제는 언제나 zero sum 게임 같아요. 인원이 많을 때는 사무실의 힘은 좋은 반면 아무래도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원이 적으면 변화에 대한 순발력은 좋은 반면 체력이 부족하지요. 몸집에 대한 내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큰 사무소 출신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작은 사무소이고 유연성은 좋는데 힘은 약하지요. 최근에 좀 늘었는데 거의 10~2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 유 : 신사동에 계셨을 땐 몇 명 정도의 인원이었나요?

• 최 :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 유 :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셨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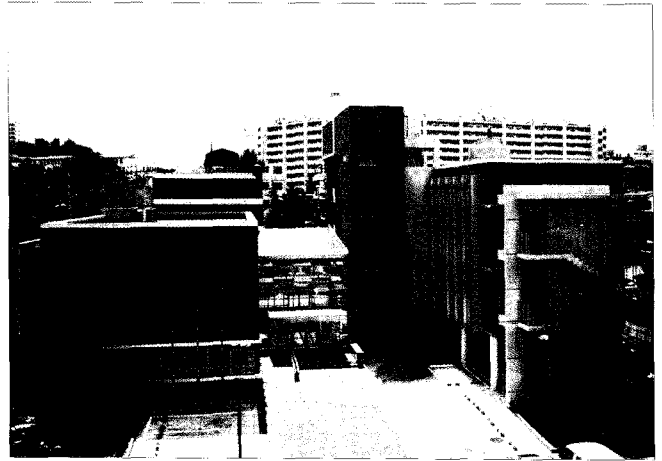
• 최 :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참 힘들어요.

• 박 : 최 건축사께서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인원수가 있으신가요? 한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요?

• 최 : 제가 혼자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챙기면,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7~8명 정도면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키우며, 또 적당한 일을 주고 성장시키고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또 일정수준이 되면 언젠가 독립도 시켜야 하고.

• 박 : 지금 독립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 최 : 돌이켜 보면, 전 사람들을 제 손으로 내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조직원 중에서 저를 잘 따르고 이해하였던 사람들이 자라서 성장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승희 건축사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동노인복지회관

식으로 독립을 하였고, 변정석 소장도 내부에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생각과 스타일이 유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면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을 함께 쓰고, 직원들이 간혹 바쁠 때 서로 돕고 그렇습니다.

• 박 : 그렇군요. 가와건축이란 이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 최 : 제가 지은 이름이지요. 무엇보다 어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나다 순(順)으로 보면 언제나 제일 앞에 오는 이름이었죠. 지금은 좀 밀렸습니다. 가와건축(최문규)이 있고, 또 부산엔 가가건축(안용대)이 있습니다. 하하. 여기에서 가(家)는 '장이', artist를 뜻하였고, '와'는 with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 박 : 이름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 최 : 제가 일본 와세다대학에 잠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회사이름을 영어로 KAWA라고 썼고 이는 발음상 일본말 천(川)과 발음이 같아서 작은 오해가 있긴 하였지요. 또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씩 다 가 와라 (모두 가져와라)' 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 박 : 공간에 계시다 독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최 : 흔히 말하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공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거기에 제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공간이 한참 어려울 때 못 그만둔 것이 무능을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아직 배울 것을 다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하겠다고 그만둔 것은 아니었고, 더 공부를 해보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최 건축사는 미술을 공부하다 군 제대 후 건축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이 많아(최 건축사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생활에는 늘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 : 공간이 첫 직장이었나요?

• 최 : 그렇습니다. 9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고할 자료가 '공간' 밖에 없어요. 가끔 운영을 하다 막힐 때에, 또 저 스스로

응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제가 공간에서 근무를 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지나다 보면, 사무실 출신 별로 사무실 운영방식에 특징이 있지요.

● 박 : 설계를 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축학과 졸업생들, 그들에게 첫 직장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 최 : 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방향하고 헤매지요. 성공한 사람이나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자신의 철학과 생각과 사고를 결정하게 돕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와건축 직원들에게 그러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려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조그만 설계사무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건축적인 자산을 나누는 것이 큰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 : 최 건축사님에게는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하였겠군요.

● 최 : 입사해서 처음 보였던 김수근 선생님의 인상, 또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던 한 마디 한 마디들, 당시 만났던 선배와 동료들과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각인되었다고나 할까요?

● 박 : 그래서 가와건축이 시작된 지 어느덧 14~15년은 된 것이군요.

● 최 : 그렇습니다.

● 박 : 그 기간 동안 가장 나빴던 것 또 가장 좋았던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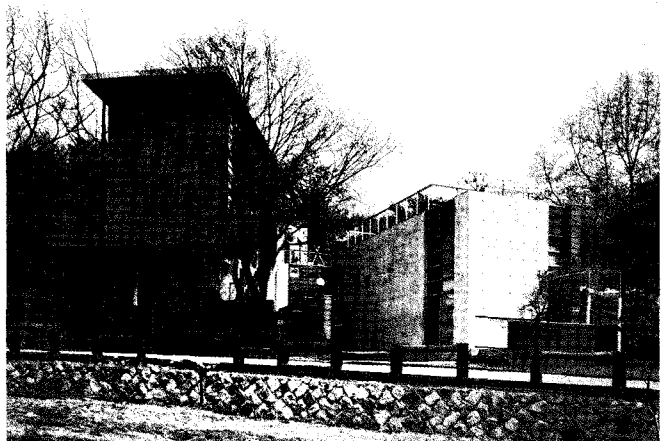
● 최 : 사실 사무실 운영하면서 별의별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전 대하소설을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일이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사무실 내 구성원 각각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직원간 관계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과 회사 운영 같은 것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저에게는 공간에서 본 것이 전부였지요. 승효상 선생님 같은 분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멀리 있어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사무실 차리고 처음 응모한 현상설계에서 장타를 날렸던 경우인데요, 고양시 덕양구청이 당선 되었어요. 당시 곧 진주시청사 현상설계가 나온다고 해서 연습 삼아 해본 것이었는데 당선한 것입니다.

● 유 : 그게 언제 이야기인가요?

● 최 : 1996년도입니다. 지금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대단히 컸던 것인데 당시 건축주인 공무원들과 문제가 생겨 제가 당시 '건축사' 지에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건축주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서 건축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주에



소소갤러리



민마루 I

게 참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현상설계에서 떨어져도 시원할 때가 있어요. 만일 먹고 살 일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떨어져도 시원한 면이 있는 거죠. 사실 현상공모는 떨어져도 걱정, 되면 이제부터 시작될 힘든 일 걱정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간 사무실 운영하면서 참 나빴던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일은 제가 일산에 제 집을 지은 것입니다. 또 헤이리에도 자그만 화랑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건 제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운이 다가온 경우인데, 당시 IMF외환위기 때였으나 스스로 건축주가 되고, 건축사가 되어서 직접 손으로 짓고, 일한 것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깨우치고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헤이리의 소소갤러리는 목조와 콘크리트조를 혼합하여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구조인데,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목조 워크숍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설계를 하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복잡했으나, 이를 통해 저는 목조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목조 기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유 : 목조 건축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시죠.

● 최 : 저희가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목조를 연구한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의 목조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없었어요. 세계의 목조를 보러 다니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들에 목조로 제안을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여주 간이 휴게소와 진주 휴게소를 목조로 제안 하여 당선이 되

있어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일반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목조 부재들은 모두 공업화 생산이고, 엔지니어링이 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설명을 해도, 관련자들이 모두 '화재에 괜찮나?' '유지관리에 문제없나?' 하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여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의 도네이션으로 지어진 헤이리의 소소 갤러리가 그런 목구조 건물인데, 한복 입은 목구조가 아니라 양복 입은 목구조인 셈이죠.

● 박 : 만일 어떤 분들이 목조가 화재와 유지관리에 대해 취약하다고 말씀하실 때,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을 가보시라고 하면, 궁금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승례문은 사실 방화니까요. 아마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 유 : 혹시 목조를 하는데 동참하는 다른 분들은 안계시나요?

● 최 : 건축가로는 조남호 선생도 목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STUGA의 김갑봉 사장이 좋은 파트너지요. 목조계에서도 내공 깊은 이로 정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공간 후배이기도 합니다.

● 유 :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을 배울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학생들의 경향은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큰 사무실, 조건이 좋은 사무실로 지원하고, 또 설계를 하려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 최근에 만나는 학생들의 진로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잘할 것 같은 학생이 갑자기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아는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다양하게 퍼지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 : 질문을 조금 바꿔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좋은 직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 최 :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일을 재미있어 하며 느리더라도 꾸준하고, 독심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 박 : 현재 진행되는 건축의 제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 아무래도 제가 현상설계를 많이 하니까, 심사실명제, 심의실명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도 제도가 완벽해 질 수는 없겠고, 다만 실명을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기릴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지요. 심사 중에 책임 없는 말들을 마구 던지는 수가 있고, 거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 하자면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지요. 설계자가 감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지만 감리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집니다.

● 박 : 현상설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상안을 뽑는 경우와 건축을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어떨까요?

● 최 : 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면, 지역의 설계사무실의 지원을 받아 공모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참여자들의 생각보다 공모지침의 수준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별 필요 없는 가치, 즉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순서가 잘못 정렬되어 최우선 순위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 박 : 이제 이야기를 '경상대학교 해양연구소'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언제부터 통영에 있었나요?

● 최 : 사실은 통영수산대학교가 경상대학교와 통합된 것이고, 좀 정확히 하자면, '국립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 유 : 이것도 현상설계에서 당선 된 것인가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유 : 건물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 최 : 제가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물의 형태보다는 이것이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해줄까? 혹은 어떻게 내부를 비워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그랬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 집 앞에 내가 있었고, 뒤에 산이 있었지요. 또 안채가 있고, 사랑채도 있는 그런 집이었죠. 여러 차례 이사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한 한국적 주거환경에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주변의 자연여건과 학교시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측으로는 통영 앞바다를 만나게 되고, 북측으로는 산을 만나는, 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주된 출입구와 주 도로에 접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교실과 연구실의 내부 상황보다는 이들이 복도나 마당으로 나왔을 때 보게 되는 바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다, 그 다음에는 바다와 만나는 마당 등 이러한 관계를 처음부터 생각하였습니다. 남측으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배치하고, 그 하부를 필로티로 띄워, 마당에서 바다로 향하는 경관을 열어 주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의 매스를 분리하되, 브리지로 연결하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세팅을 통해서 바다와 마당과 산이 서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 유 : 통영시 전체로 볼 때 이 건물은 어떠한 위치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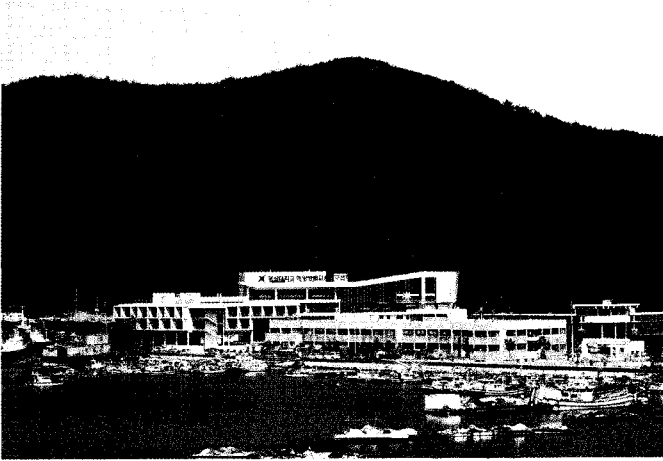
● 최 : 통영시의 바닷가 쪽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시내입니다.

● 유 : 실제 지어진 건물이 현상안과 거의 동일하게 실현 되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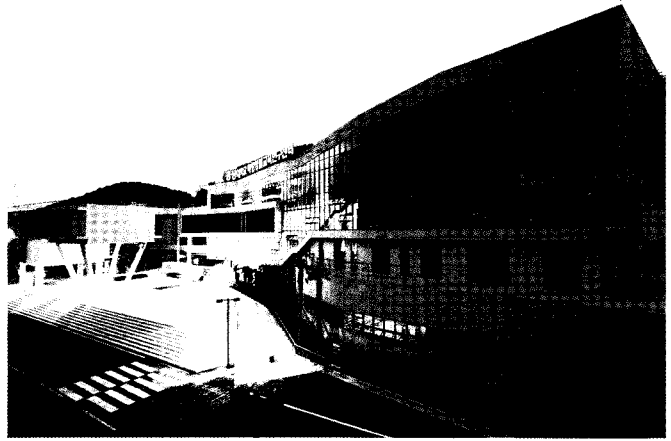
● 최 : 공간 및 구조 등은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재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 박 : 바뀌게 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최 : 우선 대형 강의실 부분 외벽으로 티타늄 아연판을 계획하였는데, 공사비에 맞추느라 콘크리트 노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체적 구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원경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전경

성으로 당초 저층부는 단단한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 유선형의 상부는 티타늄 아연판, 그리고 산 쪽으로는 목재 등을 사용해 보려했는데, 공사비 관계상 모두 콘크리트로 바꾸었지요.

● 박 : 재료의 변경을 최 건축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바꾼 것인가요?

● 최 : 그 쪽(발주처)에서 비용이 오버되었다고 변경을 요청했고, 그러기를 몇 차례 거친 뒤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콘크리트로 권유하게 되었지요.

● 박 : 설계를 다 끝내고 견적을 하셨을 때, 이것이 예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 최 : 예상 금액에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처도 용인하는 분위기였지요. 그간 현상설계에서 예상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또 이 건물의 공사비가 초기 단계부터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박 :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하였었나요?

● 최 : 오래되어서 정확한지가 자신 없지만 대략 400만원/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약간 우려도 있었지요. 또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등의 주거시설이 추가로 포함되게 되어, 일반 학교 보다 공사비가 올라갈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비 공사에서도, 그리고 지체에 없었던 업무 영역인 해수를 학교까지 끌고 들어오는 시설과 인근의 도로정비 마저도 본 공사비에서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건축공사비는 계속 줄어든 셈이 되죠.

● 박 :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새로운 스코프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본 공사비에서 총당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건 설계변경 계약을 별도로 하고 진행하셨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최 : 사실 공사비가 늘어나면 예산 산정상 설계비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금액 내에서 계속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맞춰진 결과가 되었죠. 지하공간의 수영장도 없애는 등, 주요 아이템들이 없어 졌고, 설계기간만 4개월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박 : 그럼 설계변경 계약이 있었나요?

● 최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했죠. 매우 억울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했어요. 법정소송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다시 깊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승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소송은 이긴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잃을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건축사의 입장에서 참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 박 : 그래도 지체상금이란 것이 계약상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발주처와의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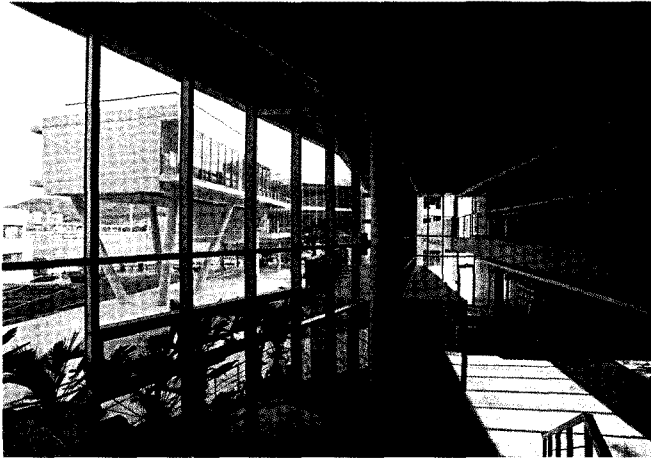
● 최 : 관계를 잘못된 것이 크겠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가고, 원만한 소통의 틀을 유지하였다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내 탓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내가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 : 뭐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건축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 :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니주의 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끝내고 설계비를 다 받았지만, 설계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설계비를 더 지불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좋은 사례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좀 더 나아지겠죠. 경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므로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변경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예산이 잡히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불찰이지요, 사실 심의위원이나 발주처 쪽의 인사들이 그런 업무를 알아서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리한 기대겠지요.

● 박 : 혹시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시는 사람이나, 기타 도움된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최 : 글썄요,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산도 맞추고, 힘드나마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연구동 출

목표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현상공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면, 건물이 거의 박스 타입이 될 것입니다. 또 예산에 맞추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맞추다 보면 떨어지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지는 간과되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상을 발주하면 합리적인 예산이 나와야 하고, 치밀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진행되다 보니, 막상 설계할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 박 : 이 건물에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프로그램 때문에 현상 안이 바뀌거나, 흔들리지는 않았나요?

● 최 : 다행히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간 조정은 하였지만, 건물의 큰 흐름을 바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 박 : 계약하실 때 현상 공고시 나왔던 설계비보다 깎아셨나요?

● 최 : 잘 기억나진 않네요. 사실 심하게 깎았던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마 비슷하게 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것이 공고에 나온 금액을 왜 그대로 주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 : 제가 알기로, 현상에 당선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선되고 나면, 이름도 생소한 수의사들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가격을 다시 흥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제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해서도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 까지도 국제현상은 건축사에게 저작권이 있고, 국내현상은 발주자가 저작권을 갖고 그랬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박 : 계약서 작성하실 때, 건축사협회에서 만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 최 : 물론 발주처에서 제공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 박 : 혹시 계약서 내용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소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최 :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떤 지 궁금하고 또 문제가 다소간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검토한다고 그 내용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박 :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폭력적인(!) 계약이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세세하게 읽어 왔는데, 참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군요. 창피합니다.

● 최 : 많은 건축사들이 오래 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 반발하거나 도전하였으면, 지금쯤 바뀌었겠죠. 하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업체 들은 자신들이 별도 발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쪽에선 계약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 박 : 공공의 현상을 통해 당선된 건물이다 보니, 계약이나 진행방식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긴 힘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정해진 제도상 제약과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되는 느낌입니다.

● 최 : 뭐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 : 이 건물의 시공은 누가 하였나요?

● 최 : 지역 업체였습니다. 입찰에 의해 결정 된 것 같습니다.

● 유 : 어떻게 제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나요?

● 최 :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한 이 건물의 감리를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감리업체도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감리를 할 수 없었지만, 간간히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설계자인 저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밤 12시에도 전화가 온 적도 많습니다. 저희는 일일이 모두 대답하고 협조하였습니다. 물론 무부수였구요. 애쓴 사람이 있어 결국 건물이 이 정도라도 지어진 것입니다. 그 분의 덕입니다.

● 박 :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최 : 국립 경상대학교 시설과의 최옥근 계장님 덕분입니다. 이 분은 소신도 있고, 대쪽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공무원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어,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찾거나, 찾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였을까요? 아니면,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관계상 생기는 문제였을까요?

● 최 : 그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재료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니, 실제로 이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한 보다 한 차원 높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을 함께 가보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느낌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해서, 배재대학교와 대전대학교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고민을 함께 한 것이죠. 물론 공사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내부를 모두 노출로 하다 보니, 음향적으론 문제도 있겠죠. 진정성이 있는 공무원이었고, 진정성이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 박 : 이 건물이 마스터플랜 상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캠퍼스 내에선 어떠한 곳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최 : 캠퍼스 내에선 외곽에 있지만, 정문에 가깝고, 산과 바다에 가깝게 접해 있습니다.

● 유 : 이 건물이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시설이 되길 바라셨겠네요. 율타리가 있나요?

● 최 : 율타리가 없어 사람들이 산책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단에도 걸터앉을 수 있습니다.

● 유 : 아까 설명하실 때, 이 건물의 중정이 캠퍼스 전체 공간을 받는다 고 하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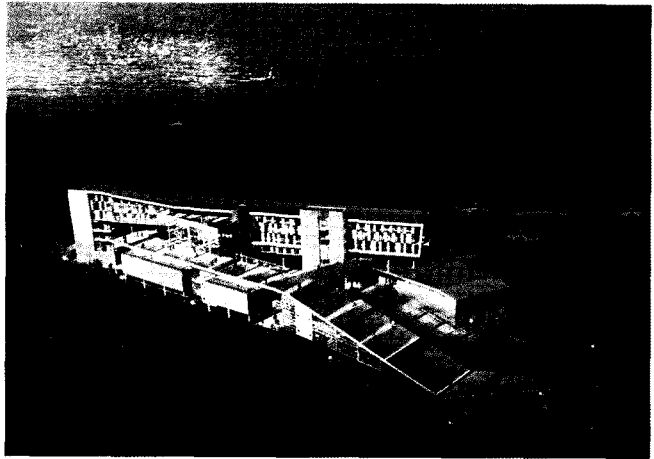
● 최 : 네 그렇습니다. 중정이 열린 쪽이 바로 대학의 중심 공간입니다. 바다 쪽으로 필로티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학교는 오래되었고, 시설의 수준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 박 : 혹시 최 건축사님이 설계하신 건물 가운데, 이 학교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거나, 유사성이 있거나 한 건물들이 있을까요?

● 최 : 전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체로 유사한데요. 대지의 어디를 마당으로 비울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능이 다른 것들은 체를 나누고, 연계성이 있으면 연결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를 맺어 갑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이 건물이 도심에 있지 않고, 도시의 언저리, 캠퍼스의 언저리, 바다와 산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충실히 하려 합니다.

● 박 : 이 건물의 주재료가 노출 콘크리트인데요, 사용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 최 : 아직은 제대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학장님의 이야기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의 일반적 사용자들의 관점은 건물의 외형에만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려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는 공간만 생각하는 경우에 다른 것이 보일 수 없죠. 왜 건축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 외부적 조건과 기타 건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큐레이터나 도슨트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 건축은 일반인의 감상 대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직선 계단도 있고, 이 계단에서 바다를 파노라믹하게 볼 수 있고, 높이에 따라 다른 시각을 만들고, 내부 창문에서 프레임을 통해 바다의 조망이 되는 것 등이 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실제 그렇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크게 느껴지는데...



경남교육종합복지관

● 유 : 세월이 흐르면 밤늦게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겠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최 : 공간적 자유로움이 심리적 자유로움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주된 것입니다. 최근에 산위에 한 현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숙소, 전망대 등이 서로 다른 기능들이 어우러져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입니다.

● 박 :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만, 다 지어진 이 건물에서 아쉬운 것, 남은 것 등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최 : 사실 어렵게, 어렵게 일이 진행 되어서, 설계하고 그리고 지어지는 순간부터 많은 아픔을 알기에 제가 마음을 많이 접습니다. 정말로 공공시설물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아무래도 경제적 제약이 많으니까요. 최근 '호화청사' 다 해서 언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잘 짓고, 수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도시 문화 수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경상대학교 건물도 몸체는 유지 되었지만, 껍데기는 벗겨진 형편인데요. 매우 아쉽습니다. 현상공모에서 당선되고 난 후에 당선 안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부족한 기획으로 공모된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 더 정리되고,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부족한 조건들 때문에, 현상 당선 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진행하면서는 여러 환경적 여건과 저의 무능들이 있었음에도 공간적 개념은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의 컬러는 아직도 아쉽습니다. 건축주의 주관과 문제가 있었지요. 결국은 건축주가 원하는 색상으로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 유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하다보니 왔다 갔다 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모두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을 기대하겠습니다. ■